

장흥군, 치매 안전 지역 만들기 '시동'



장흥군은 치매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2018년 치매안심센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올해 치매 정밀검진 의뢰와 협력의사 위촉을 위해 영암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세 이상 2천2백명을 목표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저귀 등 조호물품 지원은 물론, 장흥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매 어르신 배회 및 실종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1개소를 선정 운영하고, 올해 7월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 후에는 치매쉼터와 가족

올해 60세 이상 2천2백명 치매조기검진 실시

'인지기능 향상' 찾아가는 치매예방프로그램

카페를 운영 할 계획이다.

노인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노인복지관, 보건지소, 진료소, 지역 경로당 등 5개소 100명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은 2월부터 4월까지 8주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장흥군에서 자체교육으로 양성된 치매지도자 3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치매지도자들은 각 마을의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는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 파트너로서

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흥군은 지난해 11월 국비로 시설비 6억원과 운영비 17억원을 지원 받아 치매안심센터를 임시개소했다.

올해 7월 정식개소 후에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형 치매예방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규중 장흥군보건소장은 "앞으로 지역현실에 맞는 치매예방, 돌봄, 치료의 체계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완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인구 3만' 진도의 작은영화관

개관 7개월만에 관객 4만 눈앞

진도군 "군민 한번 이상 찾은 셈"…문화적 소외감 해소

진도의 작은영화관이 개관 7개월 여만에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관한 작은영화관 진도아리랑 시네마가 개관 이후 4만 명에 가까운 누적 관람객을 기록했다.

현재 관람객은 3만8236명으로 지난 7개월 동안 진도군민(2월말 기준 인구 3만1710명) 모두가 한 번 이상은 작은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셈이다.

진도군에는 지난 1978년 옥천국장 폐관 이후 39년 동안 영화관이 없어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진도아리랑 시네마는 진도읍 동외리 무형문화재전수관 인근에 지난해 7월20일 개관한 이후 한 달만에 누적 관람객 1만명을 넘어서었다.

또 지난해 10월말 관람객이 2만명을 넘었으며, 올 1월 중순께에는 3만명을 넘어 2월말 4만명이 예상되고 있다.

아리랑 시네마는 2개관(98석)을

갖춘 소규모 영화관으로 지역민들이 문화적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성됐다.

진도 아리랑 시네마 관계자는 "전국의 작은 영화관이 개관 이후 1년이 넘어야 3만명을 돌파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반응이다"고 말했다.

대도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절반 수준인 6000원만 내면 볼 수 있는 점도 지역민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게 하는 데 한몫을 했다.

개봉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인근 목포시까지 1시간 넘게 걸려 나가는 불편함이 사라진 효과도 커다.

농어촌 지역민들의 삶에도 여유가 생기면서 가족 단위부터 계모임, 동문회모임, 범퍼노스 모두 영화관을 찾고 있는 추세도 반영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문화적인 욕구 충족과 함께 진도아리랑 시네마가 최신 영화를 대도시와 동시에 상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여수 거문도해풀쑥 이달부터 본격 출하

강한 한파로 평년보다 한달 늦어…고유 향 질고 영양풍부

다도해 최남단의 섬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의 특산품인 해풀쑥이 본격 출하되고 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거문도해풀쑥은 1월 중순께 출하가 시작됐으나 올해는 강한 한파의 영향으로 1개월 이상 출하 시기가 늦어졌다.

거문도는 여수에서 뱃길로 2시간 이상 걸리는 청정지역으로 해풀

을 맞고 자란 쑥은 고유의 향이 짙고 영양이 풍부하며 식감도 부드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거문도해풀쑥은 품질을 인정받아 2014년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 농식품 과워브랜드에 선정됐다.

또 '무농약 친환경인증도 획득해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있다.

2월 현재 거문도에서는 195 농가가 45ha 면적의 농지에서 연간

420여 t의 해풀쑥을 생산하고 있다. 해풀쑥은 물론 넝동쑥, 쑥쑥, 쑥갓, 분말 등 다양한 가공품으로 재생산해 전국으로 판매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생산에서 기공, 체험관광으로 이어지는 6차 산업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거문도에 해풀쑥 헬링체험장을 조성하고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체험장은 해풀쑥 훈증체험장, 스파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안군, 해빙기 조기방역 활동 총력

감염병 예방 위해 4월까지 취약지 유총방제

무안군은 모기 등 위생해충으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빙기 조기 유총방제 방역활동을 4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에서 봄철로 이어지는 해빙기는 해충의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해충박멸의 최적기로, 모기유충 1미리 방제 시 성충 수백 여 마리 박멸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군은 동절기부터 4월까지를 동절기 모기유충구제 집중 방제기간으로 정하고 기동방역단(2개 반 4명)을 편성해 방역 취약지역인 하수구, 공중화장실, 정화조 등에 선제적으로 유총구제에 투여 및

환경정비를 병행하여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율러, 숙박업소 음식점,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정기적인 소독을 하고, 위생해충 등을 구제하도록 독려했다.

군 관계자는 "조기 방역소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해 꽤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3월 중에 2회에 걸쳐 9개 읍면사무소 및 400개 마을자율 방역단과 공동으로 해빙기 일제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주민불편 해소…6월까지

완도군은 오는 6월까지 관내 모든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도로명 주소가 지난 2014년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시행되고 있으나, 안내 시설물 부족으로 인한 위치 찾기 불편함을 해소하고 멀실·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하여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을

개선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을 전 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차로나 이면도로, 골목길, 인구 밀집지역 등 안내시설 미설치로 위치 찾기가 험들되는 곳은 추가로 안내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일제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총 26,780개로 시설물의 설치위치 적합성, 훼손 및 망실여부, 추가설치 위치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도로명 주소가 없는 산악, 하천 등에서도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한 주요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국가기초번호판도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여수시, 청년어업인 창업비용 최대 900만 원 지원

월 100만 원씩 최대 9개월간

년 어업인들은 월 100만 원씩 최대 9개월간 창업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창업관련 교육비, 영어 기자재 구입비, 상품 개발비, 마케팅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시수 산경영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연령기준은 만18세 이상 40세 미만(1978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청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군 특산품관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그대로의 맛과 신선함!